

강릉 성산 산불피해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

(대표발의 : 김기영 의원)

의안 번호	44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7. 5. 11.

발 의 자 : 김기영, 이용기, 기세남, 조영돈,
최선근, 이재안, 강희문, 김남형,
유현민, 박경자, 한상돈, 조대영,
김남길, 배용주, 최익순, 허병관,
박건영, 김복자

1. 주 문

- 별첨 “결의문” 과 같음

2. 제안이유

- 지난 5월 6일 발생한 강릉 성산 산불로 잠정적으로 산림 피해 57ha, 주택피해 39동, 이재민 81명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.
-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중앙정부에서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, 이재민 보상 및 복구계획 등 정부 주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.

3. 이송처

- 국회의장, 국민안전처장관

**- 강릉 성산 산불피해 발생에 따른 -
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**



강릉시의회

- 강릉 성산 산불피해 발생에 따른 -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

지난 5월 6일 발생한 강릉 성산 산불로,
잠정적으로 산림피해 57ha, 주택피해 39동,
이재민 81명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 하였다.

그동안 우리 강릉은 2000년 대형 산불,
2002년과 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,
2011년 대설피해 등 엄청난 재난을 겪어 왔으나,
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중앙정부의 지원아래,
시민이 하나되어 슬기롭게 극복해 올 수 있었다.

우리 강릉시민은,
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해 오던 중,
또다시 닥친 재난으로 많은 실망과 고통을 겪고 있다.

특히 이번 산불은 강풍으로 진화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,
시민과 공무원이 하나되어 산불확산을 막을 수 있었으며,
이제는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.

그러나 소요되는 예산과 복구과정에서의 많은 어려움으로, 복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.

현행법상 주택복구에 대한 지원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, 자력복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.

또한, 피해목 제거 및 피해산림조림사업 등에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며, 이럴 때 일수록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때이다.

이에 우리 강릉시 의회는, 중앙정부에서 조속히 **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**하여, 이재민 보상 및 복구계획 등 정부 주도의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,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.

2017. 5. 12.

강릉시의회